

9월14일(월)/누가복음12:49-53

제목: 우리 서로 분쟁 합시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오셨고 (49절) 분쟁을 주러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51절) 그래서 이 후 부터 가정의 식구들끼리,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된다(53절) 물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평화는 선과 악이 분리된 뒤에 오는 평화이다. 그 평화는 진리와 비 진리를 분리한 후에 오는 평화이다. 선 이냐 악이냐, 진리냐 빈 진리냐를 분리하기 전에는 지구상에 있는 각 공동체와 각 가정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겪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선과 악의 투쟁을 선포 하시고 진리와 비 진리의 전쟁을 지휘하신다. 이 전투에 승리한 사람만이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기 전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렇고, 십일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렇고 하나님이나 알라신 이냐의 문제가 그렇다. 이런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만이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전쟁을 포기하고 쉬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 직무유기이다.

9월15일(화)/누가복음12:54-59

제목: 역사와 사건을 통한 계시

예수님은 ‘시대의 분별’에 관한 말씀을 일기(기상)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뭉쳐있으면 곧 비를 예감하였다.(54절) 또 사막에서 남풍이 불면 장마와 더위를 예감하였다.(55절) 그러나 하늘의 기상은 것처럼 잘 분별하였던 그들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다.(56절)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착각을 범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하는 의무는 현대 성도에게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역사로서의 계시’라 부른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 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 지진이 더 잦고,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자연계의 법칙은 더 깨어지고, 민족 간의 전쟁은 더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더 악하고, 더 공포하고 더 무정하고 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와 볼 눈이 있는 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이제 는 종말이며 자다가 깰 때이다.

9월16일(수)/누가복음13:1-5

제목: 무정한 인간들

로마에 항거하던 어떤 갈릴리인들이 병사들에 살해되어 그 피가 성전의 제물과 섞여버린 사건이었다.(1-2절) 또 실로암 망대 공사를 하던 18명의 인부가 망대가 무너져 죽는 사건도 있었다.(4절) 당시에 이 사건들은 신학적인 화제 거리였다. 유대인들은 죽은 저들이 자신들의 중한 죄로 죽었을 것이라 하였다.(4절)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보았다. 이들은 남의 불행을 신학적인 논쟁거리로만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타인의 어려움을 즐기고, 비꼬며, 화제 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남의 불행을 자기 엉덩이에 난 종기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무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습성이 조금씩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건을 화제 거리로 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사건이 발생 하자마자 해결자로 나서시는 분이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예수님께만 들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진정한 이웃은 사건이 생기자마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주히 뛰어다니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다.

9월17일(목)/누가복음13:6-9

제목: 재차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자비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성숙기에 이르는데 그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간주하여 버린다.(7절) 그러나 어떤 과원지기는 그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달라하였다.(8절) 3년을 더 두고 보자는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재차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야곱도, 다윗도, 요나도, 베드로도, 마가도, 바울도, 그 모두가 이 재차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무한하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당신은 다시 일 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이다. 그가 주시는 기회는 고작 서너번 정도가 최소한 499번(7×70)이다. 그가 주시는 이 기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지탱되고 있다. 이 무한한 용납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하여 지상에 서 사라졌을 것이다.

9월18일(금)/누가복음13:10-17

제목: 생명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종교

예수님께서 한 귀신들린 여인을 치료하셨는데 (11-13절) 회당장은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한 예수님에게 반발하였다.(14절) 예수님은 이렇게 법을 꼬치꼬치 따지는 자들에게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5절)며 그들의 이중인격을 꼬집으셨다. 이들은 인간에게 냉혹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은 하나의 소모품이었다. 그들은 인간 보다 제도와 조직을 우선시하였다. 기독교는 인간이 최우선이다.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셨다. 제도와 조직의 절대화를 인간의 인격보다 앞세우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동안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의 다툼과 분쟁이 혹시 제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많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로 산 것이다. 조직폭력배들은 조직을 이탈하는 조직원의 생명을 가차 없이 빼앗는다. 교회가 조직을 우선시 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경시 한다면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며 하나의 조직체이다. 때문에 교회도 조직폭력배의 사상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